

# 말씀의 샘

## 주님으로 다시 시작하세요 <요한복음 21장 15~18절>

오늘도 역시 지난 주에 이어서 영적전쟁에 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싸움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람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흔히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는 말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적인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 뒤에 그걸 숨어서 조종하는 악한 영들을 보고 이걸 싸움의 대상으로 삼을 줄 아는 것이 영적전쟁의 시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계명이 영적인 싸움에서 본다면 굉장히 방어적인 명령입니다. 사랑할 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이간하고 들어오는 악한 역사의 틈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시인한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하면서 넘어집니다. 상황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었고 어쩌다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미리 이걸 영적으로 아셨습니다.

**누가복음 22:31**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33**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옥에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 하였나이다 **34**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영적인 싸움이었고 베드로는 패배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믿음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 주님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과 다시 만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잠언 24:16**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영적 전쟁의 요소이며,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의 과정에 가장 중요한 태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으려면, 두 가지의 중요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째, “내 힘으로는 안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으로 해야되는구나”입니다.**

이것은 기도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이걸 진짜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할 수 밖에 없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볼 때 제일 먼저 시험에 들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주여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였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것이 마귀가 틈타기 가장 좋은 요소이며, 영적으로 패배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러니 기도에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기도도 절박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어도 자기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졸고 기도에 실패한 것입니다. 믿음의 패배는 결코 우리가 못나서도 아니고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영적 싸움은 그 자체가 원래 주님의 힘으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넘어지고 다시 시작하는 과정 가운데 이러한 큰 깨달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서 열흘간 정말 마음 쏟아 기도했고, 그는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가서 기도했고, 초대교회에 큰 교회가 발생했을 때도 도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은 초대 교회 성도들 또한 문제만 생기면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고, 후에 야고보 사도가 순교하는 위기를 겪었을 때도 기도했고 초대교회를 이끌던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도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넘어졌을 때 ‘아, 나는 연약하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겠구나’하고 빨리 무릎을 꿇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빨리 결정할수록 좋습니다. 인간적인 생각보다 영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와 가롯 유다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둘 다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넘어졌습니다. 가롯 유다도 하나님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왔더라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베드로가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가롯 유다가 다시 일어나지 못했던 이유는 다음의 성경 구절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마 26:74**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75**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의 말씀에... 생각나서”입니다.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은 이처럼 회개하고 깨닫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마 27:3** 그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4**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나 네가 당하라 하거늘 **5**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가롯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넘어졌을 때 생각나는 말씀이 없다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그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합니다. 스스로 하는 사람 생각은 파괴적으로 갑니다. “죽자, 끝내자, 관두자...” 마귀는 이렇게 스스로 하는 사람의 생각 속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그의 생각을 몰고 갑니다. 결코 스스로 하는 생각은 좋은 결과를 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생각나서 나의 부족을 깨닫고 하나님으로 해야 함을 깨닫고 항상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있는 모습 그대로 빨리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과 추적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기회가 한번이라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돌아갈 곳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대하기 힘든 것입니다. 주님을 세 번 부인한 베드로는 만 가지 생각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스스로를 정죄하고 난 안된다는 생각, 낙심과 포기, 상실감, 만약 주님을 만난다면 도저히 얼굴을 쳐다 볼 엄지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했던 기억을 지우려고 했는지 그는 다시 옛날 고기 잡던 시절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런 베드로를 다시 만나러 갈릴리 해변으로 가십니다. 주님은 밤새 고기 잡는 일을 실패한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 요한은 예수님임을 직감하고 베드로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도망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볼 면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옷을 벗고 바다에 뛰어들어 예수님께로 헤엄쳐서 갔습니다.

내가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주님이 보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비록 넘어졌지만 주님이 사무치게 그리웠던 것입니다. 주님과 사랑의 추억이 있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지만 그래도 주님한테로 돌아가고 싶은 소망이 샘솟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과 사랑의 추억이 있고 주님의 사랑이 그림자면 내가 부족해도 있는 그대로 빨리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세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때 주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답변이 특별합니다. 주님이 두 번 물으실 때 사랑하느냐는 “아가파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필레오” <친구와 우정의 사랑>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세 번째 물으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실 때는 “필레오”로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고민에 빠집니다. 세 번 부인하고 도망쳐버린 비겁한 자기 모습이 생각나면서 그나마 두 번 고백했던 “필레오” 사랑도 거짓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용기를 냅니다. 자기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부족을 다 알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용기가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넘어질 때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빨리 나아가는 용기가 너무도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다시 주님으로 시작할 수 있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영적 승리는 죄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다시 일어나는 것도 영적인 승리인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가 있는 두란노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2015. 11. 22 주일예배 이 강화 목사

## 2015. 11. 29 주일 예배

찬양과 기도 ----- 찬양팀 (인도-구수진 사모)

성 경 봉 독 ----- 예배소서 4장 11~16절

말 씬 선 포 ----- 이 강화 목사

"예수 안에 한 가족"

축 도

두란노 소식 ----- 4면에 있습니다

## 예 배 안 내

주일 예배 : 주일 오후 2시

수요 예배 : 수요일 오후 7:30

금요 예배 : 금요일 오후 7:30

